투데이 칼럼

전북이 변해야 한다

김 상 호

선진통일건국연합 전북대표

전북이 변해야 호남이 변하고, 호남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

선거철만 되면 수도 없이 울려 퍼졌을 소리가 아니냐 물는 것은 우문(愚問)이나. 수도없이 반복해 외쳐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대한민국의 GDP가 치솟고, 충청인구가 호남을 넘어서는 와중에도 전북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광주와 전남이 호남을 대표하는 양 나설 때도 조용히 뒤를 받쳐줬던 것이 전북이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어떠한가? 그 결과 전북의 모든 지표는 항상 지자체 일람(一覽) 아래쪽에서 찾아야 한다.

대체 왜인가?

늘 변하지는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퍼졌기 때문이다.

진정한 대오 각성이 필요한 순간이다.

동학혁명의 고장은 그 불씨를 껴안고 조용히 재가 되어가고 있던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잠재력을 채 모두 격발시키지 못한 채 불발탄이 되어 쓰러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다가오는 내년 총선이 기회다.

충격만이 잠든 전북의 혼을 깨울 수 있다.

전북은 '당연하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어느새 전국 지자체들이 전북은 '당연히' 모든 지표에서 낮아도 되고, 예산이 적어도 되고, 순서가 뒤여도 괜찮다고 여겼는가?

그 모두에게 일명경인(一鳴驚人)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용기를 내어 현 정부 첫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섰다.

전북이 낸 기린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검사가 무엇이 아쉬워 사선에 나서겠는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변해야 하며, 그것이 전북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책무라는 것을 힘 있는 후보, 용산 대통령실을 움직일 수 있는 여권의 힘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전북이 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북이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북에서 나고자란 그대의 생각이, 선택이 변하는 일이다.

이는 전향도, 변덕도, 배반도 아니다.

분노와 허무감이 불러온 회초리요, 일성으로 우리가 깨어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동학의 시대는 끝났으되 혁명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소신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쉬워보이지만, 사실 오랜 습관을 버리려는 결단이 필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 손을 움직이는 것이라 간단한 일이겠다.

그럴땐 한마디만 기억하라. 전북은 변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U20 월드컵 우승, 기념 촬영하는 우루과이 선수들

우루과이 선수들이 1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디에고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1-0으로 꺾고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다.

'대피 중 러시아 공격' 부상 민간인 옮기는 구조대

1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구조대가 헤르손에서 홍수 대피 중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부상한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테러범들이 대피로와 민간인들이 탄 보트 등에 포격하고 있다"라며 "짐승들도 러시아보다는 도덕적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 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부지 침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부지가 침수돼 우려가 크다. 전라북도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잼버리 대회를 감안하지 않은 농경지 조성 방식으로 부지를 만드는 데에만 급급했던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오는 8월 1일부터 세계 청소년들이 12일 동안 야영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 5월에 내린 두 차례 큰 비로 물이 고이면서 빠지지 않았다.

석가탄신일 연휴 큰비로도 발이 무릎 깊이까지 빠지는 곳이 또 다시 여기저기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해명은 어처구니가 없다.

농어촌공사가 부지를 매립할 당시 행사가 목적이 아닌 농지를 만드는 목적으로 농지 기준의 배수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특히 기울기가 거의 없이 평탄화 하는 바람에 배수 시간이 지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외곽 배수로의 기능 저하와 내부 소배수로 미설치도 침수 원인이다. 야영지가 아닌 논을 만든 셈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용지로 계획이 돼 있다.

이곳은 2017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되고 이후에 간척이 진행돼 지난해에야 완공됐다. 대회장 목적의 어떠한 설계도 적용되지 않았다. 2천억의 기금을 공사비로 쓰고도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땅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배수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대략적인 계획만 세웠을 뿐 이제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펌핑을 통한 강제 배수 조치에도 나섰다.

그러나 대회 개최 효과 홍보와 낯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잼버리 대회장은 현재 언덕하나, 나무 하나 없는 허허벌판이다. 축제장인지, 논바닥인지, 구분도 없다.

어느 병원장의 고향 사랑

전북 출향 인사들의 고향 사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 학교를 마친 출향인들의 모교 사랑이 빛을 내고 있다. 전남 여수시내에 위치한 여수백병원 백창희(56) 원장은 최근 전북대 의과대학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인 백창희 원장은 후배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써달라며 기금을 냈다. 백 원장은 "의대 후배들과 마주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우리 후배들을 위해 선배로서 무엇인가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꾸준한 기부 등을 통해 여수지역 의료계 최초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가 기부한 성금은 여수시 복지 사업비와 의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 또 사랑과 희망의 '빨간 밥차' 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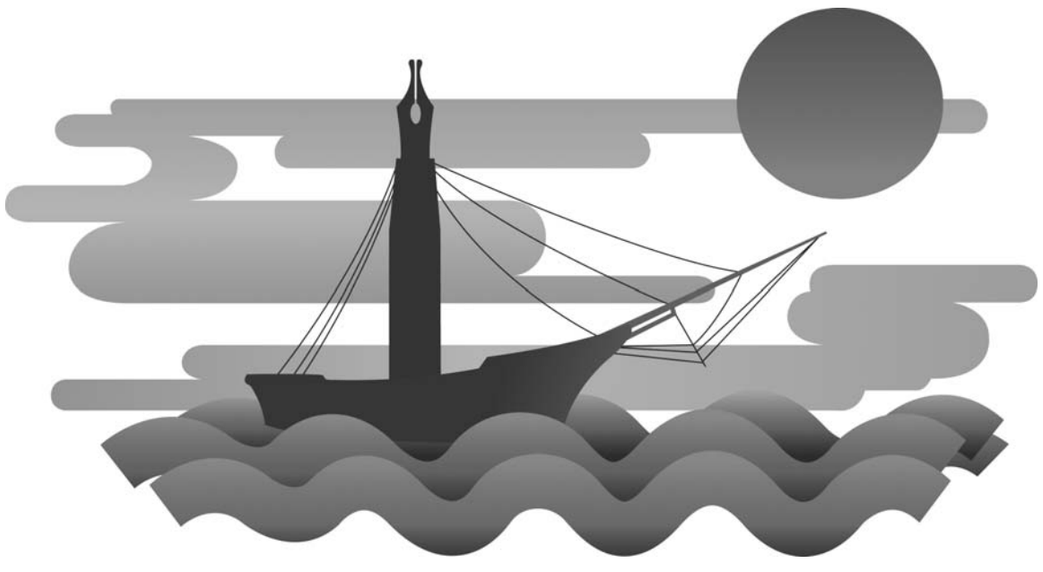
백창희 원장은 지난해 11월 전북대 의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특강에서 "당시 후배들의 빛나는 눈빛을 마주하고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특강에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학창시절 이야기와 그간의 노력과 경험 등을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학생들 눈빛에서 지난 시절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배로서 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생각에 머물러 왔던 일을 실천할 수 있어 오히려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향 사랑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기부를 통해 전북대 의대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후배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길 바란다. 특히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큰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모교 발전에도 밑알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편 백창희 원장은 김제 백구면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를 졸업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